

9/1/19

설교 제목: 하나님을 믿으라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가복음 11 장 12-26 절

(막 11:12)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절관주** 마 21:18

(막 11:13) 멀리서 앞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앞사귀 외에 아무 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막 11:14)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마 21:12-17; 눅 19:45-48; 요 2:13-22)

(막 11:15)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막 11:16)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막 11:17)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절관주 렘 7:11, 마 21:45, 눅 19:47

(막 11:18)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막 11:19)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무화과나무가 마르다(마 21:20-22)

(막 11:20)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막 11:21)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막 11:22)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막 11:2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절관주** 마 21:21, 눅 17:6

(막 11: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절관주** 1 요 3:22

(막 11:25)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막 11:26) (없음)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한 사건 사이에 다른 한 사건이 끼여있는 구조입니다.

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앞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저주를 하시자 그
다음 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사건이고 또 다른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의자를 둘러 앉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사이에 성전 청결 사건이 끼어있습니다.

이같은 이중 문단 구조는 앞에 5장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죽어가는 그의 어린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 열두 해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을 만나 그녀를 고쳐 주십니다.

그러나 그러느라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에 회당당의 어린 딸이 죽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어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회당장 야이로를 앞세우고 이미 죽어
장례를 준비하고 있던 회당장 집으로 가서서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살리는 사건 사이에 열두 해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을 고친
사건이 끼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건 사이에 다른 사건을 끼어 기록한 경우는 저자의 특별한 의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자의 의도를 바로 파악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주일에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둘러 보시고는 때가 저물어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돌아 가셨습
니다.

(막 11:11)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 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리고는 다음 날 아침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가는 도중 시장하셨던 예수님 눈에 무화과 나무가 들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기대하고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가셨지만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실망하신 나머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막 11:12)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막 11:13)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 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막 11:14)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말씀은 우리를 상당히 당혹하게 만듭니다.

아니 사랑의 예수님이 당신이 시장하여 찾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그 나무를 저주하시다니요?

더군다나 저자는 때가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와 지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지중해와 접한 이스라엘은 4월부터 10월까지가 여름이고 11월부터 3월까지가 겨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과는 달리 여름이 건기이고 겨울이 우기입니다.

이곳 무화과 나무는 유월절이 있는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여름 건기에 모두 다섯 번 열매를 맺습니다.

겨울이 지나 유월절이 다가오면 조그만 잎사귀와 함께 첫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와 이후에 열리는 열매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릅니다.

유월절 즈음에 맺히는 첫 열매는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합니다.

무화과를 뜻하는 영어 'fig'도 '파게'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후에 열리는 열매는 '테에나'라고 합니다.

이와같이 히브리어에는 첫 무화과 열매와 이후에 열리는 무화과 열매를 가리키는 단어가 서로 다르지만 헬라어나 영어나 한국어에서는 그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종류의 무화과를 구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전혀 엉뚱한 해석을 받게 되는데 있습니다.

두 종류의 무화과를 구별하여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막 11:12)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막 11:13) 멀리서 앞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열매 파게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앞사귀 외에 아무 것도 없더라 예수께서 파게를 찾으신 것은 때가 유월절 즈음인지라 아직 본격적으로 테에나가 열릴 때가 아님이니라

(막 11:14) 예수께서 유월절 즈음에 앞사귀와 동시에 맺어야 할 파게를 맺지 못하고 앞만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저주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파게는 테에나에 비해 크기가 작고 당도도 떨어져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주인들은 상품성이 있는 테에나가 제대로 크게 열릴 수 있도록 파게를 따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무화과 나무 주인들은 자신들이 일일이 파게를 따는 수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공짜로 따 먹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인심도 얻고 동시에 노동력도 절감하는 Win-Win 전략을 쓴 것이지요.

파게는 당시 90% 이상이 가난한 소작농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필요를 제때 채워 준 정말로 고마운 과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밀 보리 무화과 포도 석류 올리브 대추 야자 등의 일곱 가지 작물들이 주로 재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밀과 보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름 과실이었습니다.

한 여름인 8월에 포도를 시작으로 9월에 석류, 10월에 올리브, 11월에 대추 야자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연유로 12월부터 4월까지 5개월 동안은 가난한 소작농들이 먹을 과실이 없었습니다.

물론 부자들은 말린 대추 야자와 무화과를 창고에 쌓아 놓고 먹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여름 건기의 시작과 함께 공짜로 얻게 될 파게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테에나에 비해 당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파게는 오랫동안 단 열매에 굶주린 이들에게 최고의 열매요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예수님도 유월절을 앞두고 파게를 찾으셨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15-19 절을 건너뛰고 20 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막 11:20)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막 11:21)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월요일 아침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침은 그 다음날 아침, 화요일 아침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멀쩡하던 무화과 나무가 하루만에 뿌리째 말라있는 것을 보고 바로 전날 예수님이 그 나무에 하신 저주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이에 벌어진 또 다른 사건인 성전 청결 사건이 15-19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 11:15)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앉으시며

(막 11:16)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막 11:17)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막 11:18)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막 11:19)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예수님은 월요일 아침 무화과 나무가 잎만 있고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실망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길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셨습니다.

성전에 가보니 성전 안은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를 파는 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이들의 상들과 의자들을 둘러 앉으셨으며 성전 안에 물건을 가지고 지나다니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을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사이에 끼어 기록한 마가의 의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가가 왜 성전 청결 사건을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사이에 끼어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시청각 자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지만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해서 이제 그 위치를 박탈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로 인해 뿌리채 말라 버린 것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마땅히 열매 파게를 맺어야 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또는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신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신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열매는 없고 잎사귀 뿐인 무화과 나무는 성전에 출입하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뿌리채 마른 것은 열매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열매없는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은 멀지 않아 곧 무너질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시는 그대로 이루어져 예루살렘은 그 뒤 약 10년이 채 못된 AD 4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아니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 안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행동은 성전에 대한 단순한 정화가 아니고 성전에 대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이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 보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으며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전통과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요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 15: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를 맺는 비결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어 주님과 하나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하나될때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루 전에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고 전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막 11:22)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막 11:2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막 11: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막 11:25)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고 했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건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 바로 이것,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해 뿌리째 말라 버려져 불태움을 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 열매없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같이 말라 버리워지고 불살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열매 맺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열매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어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